

-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

도농상생 우호교류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전라북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하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상호 협력한다.
2. 서울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 가.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등 판매 활성화
 - 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 라. 예술단 초청·방문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
 - 마.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바. ‘서울 혁신로드’를 통한 우수 혁신정책 공유 및 자문
 - 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3. 서울시와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위 각 호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실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본 협약서는 서울특별시장과 전라북도 완주군수, 진안군수, 무주군수, 장수군수가 각 시민과 군민을 대표하여 서명하고, 위 협약사항 실천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완주군수

박성일



진안군수

최성용



무주군수

황인홍



장수군수

장영수

권한대행